



대한결핵협회의 이동검진차량에는 최신 DR 엑스선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촬영 즉시 디지털 영상을 전송, 판독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대한결핵협회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어떻게 이루어지나?

글과 사진_박연숙(본지기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13일,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 취재를 위해 김포시 고촌면사무소를 찾았다. 면사무소에 들어서니 마당 한 칸에 검진차량 두 대가 눈에 띄었다. 바로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조사를 위해 마련한 이동검진센터, 결핵검진을 위한 DR 장비가 장착된 대한결핵협회의 이동검진 차량이다. 더운 날씨에 이동검진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에어컨을 충분히 가동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담당자들은 검진 하루 전부터 전기를 끌어오고 설치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검진 현장 이모저모

대한결핵협회는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폐기능 부분 검사를 담당하게 된다. 협회 각 지부의 건강증진팀에서 1명씩 이번 조사팀을 지원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검진을 위해 김진만 대리(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 건강증진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검진현장으로 나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지부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라며, 담당자가 병원 일과 검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지부 동료들의 어려움을 토로 한다.

아침부터 사람이 몰려들어 아침 9시 무렵이 되자 그날 정해져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검진을 마쳤다. 이날 상황은 좀 나은 편이다. 전날은 아침부터 12시까지 쉬지 않고 검진대상자들이 밀려드는 탓에 허리 한 번 펴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어떤 날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지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미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보람도 있다고.

질병관리본부 이동검진센터에서 대부분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검사가 끝나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 협회 이동검진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레이 촬영은 20세 이상 연령층이 대상이다.

유모차를 밀고 또 그 옆에 5~6세 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젊은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검진 다 마치신 건가요? 끝나고 나니 어떠세요?”

“아, 오늘 대상은 아이들에게요. 이런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으니 좋아요. 결과는 2주 후에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사회가 발전할수록 건강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진다. 그런데 개개인의 건강이, 개인의 것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 이러한 국민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영양조사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건강정책을 수립하기



① 오전 9시 무렵, 검진센터 안을 가득 메운 검진대상자들. 좁을 공간을 오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사요원들의 노고가 엿보인다.

② 검진센터를 다녀간 대상자들이 작성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설문지들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200개 지역 4,600가구 해당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은 크게 검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로 나뉜다. 검진조사 항목에서는 안(眼)검사, 이비인후 검사, 골밀도 검사, 흉부 X-선검사 등을 실시하며, 건강설문 조사에서는 준비된 설문지를 통해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실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사항을 조사한다. 영양조사는 검진 및 건강설문조사가 끝난 2주 후에 담당 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데 평소 식습관이나 식사내용 및 양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위의 세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영양 상태를 판단, 향후 국가 건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적극 활용하게 된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꼬박 1년간 실시되는 제4기 영양조사는 서울 북구, 경기 남부,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200개 조사구, 각 조사구 당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물

④ 열심히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학생 대상자.

⑤ 김진만 대리의 설명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하는 50대 대상자. 엑스레이 검진은 20세 이상만 해당된다.

